

2026.10.11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본문: 사무엘상 8장1-22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특이한 나라이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 이전에 해외로 나가 공부한 엘리트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보고, 믿고, 번역을 하며 읽게 된 이 성경을 어떻게 조선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이들을 통해 들어온 성경으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를 요청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 이후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전국 팔도로 불길이 번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큰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교회는 부도덕과 세습화된 시대로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스라엘도 미스바 운동 이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과 회복하심과 성장과 큰 응답을 주시고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되었다. **[삼상7:15-17]**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 추세에 맞는 세상의 제도와 왕정 체제를 요구하면서 세상으로 기울어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주의 시키신다. 진짜 놓치지 말고 주의 시키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가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본론>

1.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성도

▶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국가는 12지파의 연합 국가였다. 미스바 부흥 이후에 전 12지파가 사무엘의 지도로 말씀의 다스림으로 인도를 받아 갔다. 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와 같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하게 있는 모습을 빌미로 그들이 가진 생각, 왕정 체제가 되길 원하여 사무엘에게 요구한다. **[삼상8:5]** 왕을 세워 외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할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미스바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으시는 역사가 잘 안보이게 되며 말씀의 은혜가 무덤덤해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는 말씀의 다스림이다.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데 말씀으로 다스림이 점점 무감각해진 것이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성도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로 자녀 되게 한 복음의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2. 세상 육신에 기울지 않고 언약에 충실한 성도

▶ 하나님의 뜻은 어떤 체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정 체제가 안 된다는 뜻도 아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왕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말을 한 백성들을 위해 하신 말씀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속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 **[삼상8:7]** 왕의 다스림을 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습의 속내를 보이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데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면 창3장의 인간의 타락에 의한 본성으로 세상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실제 통계와 현상에도 이렇다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의 찾는 갈급함과 절실함이 사라진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교회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좋고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죄의 본성과 경향인 것이다. 경향은 기울이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는 뜻이다. 은혜와 힘이 있으면 기울여진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향하여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실한 자를 찾으신다. 자기 문제의 답답함보다 언약으로 변치 않는 자를 찾으신다.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찾으시

는 것이다. **[히3:13-14]** 언약을 잡고 변치 않는 충실한 자의 응답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야 한다.

3. 어떤 상황에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성도

▶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의 가르침으로 왕정 체제가 되도록, 왕정 체제가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사무엘에게 주의 시키라고 당부하신다. 이스라엘의 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기울 때 엘리트들은 세상에 기울이는 경향으로 합리화 시키면서 가고 있을 때 미스바의 영적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언약을 전달한 한 가정이었다. 이 집안이 바로 룯의 집안이다. 그 후대의 이새와 다윗을 통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시70:70-72]**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을 세워 자기 백성을 맡기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집안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충실한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와 후대 되기를 축원한다.